

한국전쟁 전후 빨찌산의 형성과 활동

이 선 아*

-
1. 머리말
 2. 한국전쟁 이전
 3. 개전 이후 인민군 후퇴시기
 4. 지대 및 지구당 개편기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빨찌산'¹⁾ 활동은 정부수립기부터 전쟁기간에 걸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1) '빨찌산'은 유격전을 수행하는 부대,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유격대를 칭하는 용어로는 게릴라(guerilla)와 빨찌산(partisan)이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게릴라'와 '빨찌산'이 비정규전에 종사한다는 맥락에서 양자가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게릴라전'(guerilla warfare)은 적 지역이나 점령지역, 또는 한 국가 내부에서 무장한 주민, 또는 정규군 요원에 의해 직, 간접으로 불규칙하게 수행되는 군사 및 준군사 활동(김광석, 『用兵術語研究』, 병학사, 1993, 385~386쪽; Edward Luttwark and Stuart Koehl, The Dictionary of Modern War, Harper Collins, 1991, 265쪽)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혁명 운동과정에서 유력한 전술로 채택되곤 했던 '빨찌산 운동'(partisan movement)은 적(외세) 점령지에서 조국의 자유, 사회변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무장유격활동으로서 군사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태업, 파괴공작, 선전선동까지 포함하는 개념(Prokhov, A.M., Bol'shaia Sovetskaia Entsiklopediia v.19, 1974, 297쪽)으로서 특히 비

쳐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미군정 시기에도 민중의 봉기와 크고 작은 소요가 줄을 이었지만 남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치적 갈등과 대립, 사회경제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여순사건에서 시작된 빨찌산 활동은 개전 후 남진했던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전쟁 이전보다 더욱 확장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전남북, 경남북 및 강원 일대의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한 빨찌산 활동은 주전선 후방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으로서 휴전 이후에도 그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전쟁을 전후해서 수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빨찌산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빨찌산 활동을 전개한 이유와 그 활동이 한국 현대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온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빨찌산 문제에 관해서는 1950년대 초반부터 이 활동을 진압하고 토벌했던 군경과 관변에서 토벌 전과를 위주로 한 기록이 서술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해방 이후부터 전쟁 직전까지 외적 조건에 의해 공산주의 운동의 투쟁전술이 '합법→배합→폭력무장투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며 빨찌산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반공주의적 시각에 의한 일면적

정규성과 정치적인 성격이 강조되었다. (Schmitt, Carl., *Theorie des Partisanen* : 정용화 역, 인간사랑, 1990, 20쪽) 이러한 공산유격대 활동으로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 내전 당시의 赤軍 빨찌산, 1920년의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항한 연해주 지역 항일 빨찌산, 1930년대 중국 동북지역 항일무장투쟁, 중국 모택동의 유격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남한지역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무장유격대 활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하에서 전개되었다. 이들은 관점과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워졌다. '2·7 구국투쟁'을 전후해 남로당 지방무장유격대는 '野山隊'로 통칭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산사람'으로 호칭하기도 했다. 군경과 관변은 '叛徒', '共匪'라는 가치판단이 깊게 개입된 명칭을 사용했다.

미국 문서에는 빨찌산들이 '暴徒'·'叛徒'(rioter, insurgent), '게릴라'(guerilla)로 기술되어 있으며, 간혹 '빨찌산'(partisan)으로도 기록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무장유격활동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빨찌산', 또는 '인민유격대'로 인식하고 호칭했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 주체가 스스로를 인식했던 명칭인 '빨찌산'을 사용하여 이들의 활동을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²⁾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B. 커밍스, J. 메릴 등의 연구가 소개되었다.³⁾ 이들은 빨찌산 투쟁이 여순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징검다리이자 이 전쟁에 내전적 성격을 부여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빨찌산 활동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남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남식은 이 문제를 독립된 주제로 삼아 한국전쟁 전후의 유격투쟁을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이러한 학문적 시도는 남로당 연구에서 비롯되어 유격투쟁 전반의 흐름을 밝히는 성과를 가져왔다.⁴⁾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남로당과 조선로동당 상층부의 결정과 행동이외에 빨찌산들의 구체적 활동 양상과 활동 동기가 포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에는 빨찌산 활동이 남한 내부의 자생적 요소와 북한의 지원이 결합된 형태이자 한국전쟁 발발과정의 변수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으며,⁵⁾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빨찌산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한국전쟁을 전후한 빨찌산 활동에 깊숙이 연관을

2) 김점곤, 『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박영사, 1973.

3) 커밍스는 戰前 유격투쟁의 주체가 비조직적 농민이라는 점을 들어 이 활동의 성격을 농민봉기로 규정하여 이를 '게릴라활동'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Cumings, B.,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2, Prinstone University Press, 1990) 메릴은 빨찌산 활동을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시까지 38선 이남에서 벌어진 일련의 폭력사태로 정의하면서 이 활동을 좌우익 대립이 낳은 갈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Merill, J. R.,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2~1989).

4) 김남식, 「1948~50년 남한내 빨찌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48년 이후의 민중항쟁과 무장투쟁」, 『한국현대사』 1, 풀빛, 1991.

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나남, 1996.

6)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2002년 10월 24일, 한·일 국제학술 세미나), 2002 ; 김광운, 「한국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조직과 활동」, 『軍史』 제48호, 2003.

맺고 있었던 북한의 경우,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9월 하순 인민군의 후퇴 이후에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전개된 유격투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 빨찌산 활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공소(空疏)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남한지역에서 빨찌산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과 활동을 서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 이전, 여순사건으로 촉발된 빨찌산 투쟁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 및 남북로동당 합당을 계기로 격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빨찌산 투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후 이들의 활동이 전쟁 정책의 규정력을 강력하게 받으며 전쟁 수행 무력의 한 축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실패의 원인을 추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당사자들이 남긴 자료, 군경측 자료, 미국측 자료, 증언자료 등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일차 자료로서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영인한 『빨찌산자료집』은 유격대 결정서와 각급 보고서, 명령서, 자서전, 일지, 회의록, 산중신문 등을 담고 있다.⁷⁾ 이 자료들은 사망한 빨찌산 대원들이나 이들의 '아지트'에서 노획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파편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인식과 활동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으로 빨찌산 활동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쟁에 관련된 공간사와 토벌 기록이다. 이 자료들은 전투상황과 토벌 전과 이상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당대에 쓰여졌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자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미국 보고서는 내용 서술 체계가 단편적임에도 빨찌산 활동의 규모와 내역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⁸⁾

7) 『빨찌산자료집』 1~7권,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8) 연구에 활용한 미국 자료는 다음과 같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6-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89); KMAG, 『G-2 Periodic Report』 1-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1989); 『美軍 CIC 情報報告書』 2-4,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소, 1996); United State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report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美國中央情報局 情報報告書, 國防軍

빨찌산 경험자의 수기와 회고록⁹⁾, 증언도 자료로 활용되었다. 실제 경험자의 회고와 증언은 공식적인 역사로 서술되지 못했던 이 문제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구술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증자료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2. 한국전쟁 이전

한국전쟁 이전 남한 지역의 빨찌산 활동은 1948년 10월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숙군의 여파와 제주도 출병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병사들은 제주 파병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남로당 세포였던 지창수 상사를 비롯한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봉기한 14연대 병사들은 10월 20일 새벽에 여수를 장악하였다.¹⁰⁾ 이들 중 14연대의 주력 600여 명은 10월 20일, 김지희의 지휘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경찰과 교전한 뒤 순천을 점령했다.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14연대의 2개 중대는 홍순석 중위의 지휘하에 반군에 결합하였고, 순천 점령 뒤 약 1,000여 명 가량의 반군들은 순천 북쪽으로 전진하다가 정부군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史研究所, 1997) : 「Intelligence Report, No.5750 : The Communist Guerrilla Problem in South Korea」, NARA, RG 226, Postwar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5) : 「Partisans Fight in Pusan Area」, NARA, RG 263, The Murphy Collection on International Communism, 1917-58, Entry Murphy Papers, Box 69(3).

9) 단행본으로는 이태, 『남부군』, 두레, 1988 ; 이영식, 『빨찌산』, 행림출판, 1988 ; 김영, 『총과 백합꽃』, 좋은 책, 1989 ;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공동체, 1989 ; 정충제, 『실록 정순덕』, 대제학, 1989 ; 정시아, 『빨찌산의 딸』, 실천문화사, 1990 ; 이인모·신준영, 『이인모』, (월간)말, 1993.

10)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국무성 G-3 보고서」, 『여순사건자료집』, 1999, 102쪽.

못하고 순천 방면으로 퇴각한 후 구례, 곡성, 보성 등지로 흩어졌다.¹¹⁾

여수 14연대의 반란에 대해 정부는 10월 21일부터 즉각 진압에 나섰다. 정부군은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고, 반란 진압에 모두 5개 연대 10개 대대와 비행대, 수색대를 동원했다.¹²⁾ 정부군은 10월 23일에 순천을, 24일에는 보성과 벌교를 탈환했다.¹³⁾ 10월 24일, 해군과 육군이 여수를 공격하여 여수에 남아있던 14연대 병력의 일부는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철수해야 했다.¹⁴⁾ 순천으로 이동했다가 김지회 중위의 지휘로 일단 순천 주변으로 흩어졌던 반군 병력은 정부군의 강력한 진압이 전개되자 지리산으로 입산해서 빨찌산 투쟁을 시작하였다.¹⁵⁾ 여수는 10월 27일에 정부군에게 진압되었으며, 이후의 정부군 작전은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백운산, 지리산 일대의 반군 추격전으로 변경되었다.¹⁶⁾ 반군 추격을 위해 육군본부는 10월 30일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했으며,¹⁷⁾ 정부는 1948년 11월 1일을 기해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했다.¹⁸⁾ 호남과 지리산 일대에서 전개된 정부군의 추격은 11월 5일에 일단락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¹⁹⁾ 정부군은 곧 새로운 전투사령부를 구례와 광주에 각각 설치하여 장기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였다.²⁰⁾

여순사건의 주도세력은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곧바로 지리산으로 입

11) G-2 Peoridic Report(이하 G-2 P/R) #968, 1948.10.20~10.21.

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1-解放과 建軍』, 1967, 459쪽.

13) G-2 P/R, #971, 1948.10.23~10.25.

14)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1, 153쪽.

15) G-2 P/R, #971, 1948.10.23~10.25.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67, 474쪽.

17) 육군본부는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군 토벌사령부 예하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對非正規戰史』, 1988, 77쪽.

18) 『동광신문』 1948.11.5.

19) 『평화일보』 1948.11.10.

20) 『호남신문』 1948.11.5.

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여 반란은 순천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군들은 지방에서 호응한 좌익세력과 결합해서 무장세력을 형성하여 추격하는 정부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반란은 장기적인 빨찌산 투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의 빨찌산들은 14연대 반군들과 그에 호응한 지역 좌익세력 및 이들에게 동조하는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었다.²²⁾ 지리산 일대에서의 빨찌산 활동은 점차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리산과 그 주변인 경남 하동, 함양, 전남 구례, 전북 남원의 경찰지서가 폐쇄되었다.²³⁾ 동절기에도 빨찌산들은 전남 순천, 보성, 벌교, 전북 남원에 출현하여 마을에서 식량을 가져가거나 지서를 습격한 후 지리산으로 퇴각하곤 했다.²⁴⁾

여순사건은 북한에 있던 남로당 지도부나 김삼룡을 위시한 서울지도부, 남로당 전남도당의 직접적인 지시와는 무관하게 발생했다. 여순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군 주체는 남로당 중앙과 전남도당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다.²⁵⁾ 또한 남로당 중앙은 여순사건 여파의 확산과 1948

21) 김광일, 『근로자』 1949년 2호, 31쪽;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여순사건을 말한다」, 『끝나지 않은 여정』, 대동, 1996, 247쪽.

22) *G-2 Periodic Report*, #1014.

23) 조선중앙통신사, 『朝鮮中央年鑑』 1950年, 263쪽.

24) 1948년 12월 10일, 경찰에 사로잡힌 전 14연대 출신 포로는, 보서·벌교 지역에 반군들이 대략 320명 가량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다음날인 12월 10일에는 남원 지역의 한 마을에 반군 100여 명이 출현해서 쌀과 감자를 갖고 지리산쪽으로 탈출했다. *G-2 P/R*, #1014, 1948.12.15~12.16; 12월 16일에는 순천군 외서면과 낙안면의 지서가 습격을 당해서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났다. 12월 18일에는 정규 국군모를 착용하고 지리산 근처에서 내려온 30명이 마친 지서를 기관총으로 습격하는 일도 일어났다. *G-2 P/R*, #1017, 1948.12.19~12.19.

25) 남로당 중앙과 전남도당에서는 여수 14연대 반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반란 호응 여부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남로당 조직이 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증언 참조.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앞의 책, 1996, 246쪽; 김세원, 『비트』 상, 일과 놀이, 1993, 51쪽. 김세원도 14연대가 진출하여 활동하던 지역에서 각 면마다 수십 명의 남로당 지하당원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목격했다고 회고하였다.

년 11월 2일의 대구 6연대 반란, 제4연대 나주지구 파견대의 반란 등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상황을 일원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남로당의 투쟁 방향이 무장유격투쟁으로 발전하는 명확한 계기점을 남로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남로당은 이러한 돌발 상황들을 투쟁의 발달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인 한편으로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했다.²⁶⁾ 남로당과 좌익세력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봉쇄되고 활동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빨찌산 투쟁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이들이 전개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활동형태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2개월여만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대중운동의 형태를 빨찌산 투쟁이라는 격렬한 활동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여순사건은 5·10 선거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 봉기와는 또 달리, 전남 동부지역이 순식간에 ‘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²⁷⁾ 정부는 이를 철저히 진압·토벌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 정부는 체제 강화를 위해 여순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 제정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⁸⁾ 이는 남로당 뿐만 아니라 제반 진보적 정치 사회활동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이승만 정부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유력한 장치로도 활용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진압의지에도 불구하고, 14연대 반군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빨찌산들은 이듬해 1949년 3월에서 5월 사이의 군 토벌작전에서 핵심지도부인 김지회, 홍순석이 전사할 때까지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²⁹⁾ 빨찌

26) 「敎國에 불타는 全南의 人民과 兵士들 이승만 傀儡 政權打倒에 蹶起」, 『노력인민』 1948.10.30 : 「全南의 人民과 兵士들의 武裝투쟁은 前進發展하고 있다」, 『노력인민』 1948.11.7.

2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1996, 168쪽.

28) 박원순, 1989, 『국가보안법연구』 1, 83쪽.

29) 1948년 12월 말부터 1월 중하순까지의 미군 G-2 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들을 토대로 이들의 활동범위를 대략 살펴볼 수 있다.

“1948년 12월 26일에 김지회부대로 생각되는 무장부대가 작은 마을 2곳을 공격해서

산들이 정부군의 추격과 토벌에 맞서서 6개월여 동안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최신 무기와 장비를 갖춘 전투병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토연대라는 특성상 주변 산악 지리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지역민 일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요인이었다.

여순사건으로 지리산 일대에서는 정부군의 추격전이 전개되고, 군 내에서는 대대적인 숙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11월 2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군 제6연대 병사들 중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무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이탈하여 달성지서를 습격한 후 팔공산으로 입산하였다.³⁰⁾ 12월 6일과 1949년 1월 30일에도 6연대 예하의 병사들의 반란이 재차 발생하여³¹⁾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이 확장되었다.³²⁾

경북 내륙 산악지역에서도 무장 유격대가 출현하였다. 부락에 소규모로 나타나는 빨찌산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공기를 게양해 놓고 정치선전연설을 한 후 퇴각했다.³³⁾ 경북 지역의 이러한 유격대 활동은 경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³⁴⁾ 강원 지역에서는 48년 5월의 강릉 사천지서 습격사건을 계기로 하여 무장유격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주로 오대산과 태백산

경찰 5명이 사망했다.” *G-2 P/R #1028* : 1949년 1월 2일에는 경남 함양에서 ‘폭도’들과의 교전이 있었으며, 1월 5일에는 모후산에서 김지희가 이끈다는 부대가 군과 5시간 교전했다. *G-2 P/R #1033* : 1월 12일에는 경남 산청에서 빨찌산 20명과 군의 교전이 있었다. *G-2 P/R #1046* : 1월 22일에는 전북 산내에서 김지희가 이끈다는 무장인원 130명과 군경이 교전했다. *G-2 P/R #1048*.

30) 『서울신문』 1948.11.5.

31)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對非正規戰史』, 40~42쪽.

32) 김남식, 1990,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한국전쟁연구』, 137쪽.
33) 12월 5일과 6일에 ‘당 노선’을 담은 좌익 삐라와 선전물이 상주, 안동 등지에 뿌려졌다. 또한 12월 8일에는 청도군에 무장한 사람들이 출현해서 인공기 게양을 볼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주의 선전을 하기도 했다. *G-2 P/R, #1013*, 1948. 12.14~12.15.

34) 미군 보고서는, “경상북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려는 경찰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퇴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논평했다. *G-2 P/R, #1013*, 1948.12.14~12.15.

일대를 중심으로 유격활동이 전개되었다.³⁵⁾

전남, 경북, 강원 지역의 산악지대에서 무장유격활동이 확대되면서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지역 좌익세력과 남로당 야산대 조직이 이에 결합하여 지리산, 호남 동남 지역 일부, 태백산, 영남 지역에는 유격지구가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지리산 유격지구는 전남, 경남, 전북 산악지대에 걸쳐있는 곳으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하동과 전북 무주, 남원, 순창, 전남 구례, 곡성, 영광, 함평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³⁶⁾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빨찌산들이 활동하는 유격지구가 형성됨으로써 정부에 반대하는 자생적인 무장유격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1949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남한 지역의 빨찌산 활동은 발생 초기에 지녔던 기층적 자생성보다 상층지도부에 의해 선도되는 경향을 띠어가게 되었다. 이는 북한 당국과 북한에 있는 남로당 지도부에 의한 유격대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49년도에 들어서면서 남북로동당은 ‘國土完整’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강력히 전개하였다. 남북로동당에게는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혁명기지이자 민주역량의 결집처’인 북한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남한내의 빨찌산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승만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혁명세력’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통합되었다.³⁷⁾ 또한 6월에는 남로당과 북로당이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함으로써 남한지역 빨찌산 투쟁의 총체적인 지도권한은 남로당이 아닌 조선로동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는 미군 철수와 이승만성권 타도를 주

35)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1950年), 263~264쪽.

36) 김남식, 앞의 책, 1990, 137쪽.

3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年, 257쪽.

요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선언서가 채택되었다.³⁸⁾ 조국전선 강령은 통일반대 세력 반대, 남한에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주요산업 국유화 실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서의 주요한 내용은 1949년 9월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입법기관 선거를 남북한에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³⁹⁾ 9월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남한지역의 유격투쟁이 4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격렬하게 전개되도록 한 주요한 이유였다.⁴⁰⁾

빨찌산 투쟁은 여순사건 직후 떠났던 지역적이고 자생적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정비된 형태로 변모해 나갔다. 북한 당국과 남로당 지도부는 월북한 남로당원과 지지자들을 북한지역의 유격대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에서 훈련시켜 남한으로 침투하도록 했다.⁴¹⁾ 1949년의 이른바 '9월 공세' 기간에 1500여명 이상의 강동정치학원 출신자들이 남파되었다. 이들은 주로 오대산 부근 38도선 상에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남하하면서 도중에 손실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당에 합류하여 3개의 병단을 편성했다. 남한 지역의 유격대는 남파된 인원과 군사체제로 개편된 지방당 조직원들이 결합하여 오대산, 태백산 지구의 인민유격대 3개 병단으로 편성되었다.⁴²⁾

인민유격대 제1병단은 이호제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구성되어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했으며, 제3병단은 김달삼과 남도부가 중심이 되어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했다.⁴³⁾ 지리산 지구에서 활동한 제2병단은 이현상을 사령관으로 하여 4개 연대가 유격활동을 전개했다.⁴⁴⁾ 제6, 7, 8, 9연

38)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6, 1988, 217~221쪽.

39)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20~221쪽.

40) 북한 당국은 조국전선의 결성을 '남조선 애국인민'들의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의 새로운 계기로 평가했다(이신철, 『한국전쟁 직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성격과 통일정책』,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0, 403쪽).

41) G-2 P/R #1004; 이영식, 『빨찌산』, 1988, 73쪽.

42)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 264~265쪽; 같은 책, 717~720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500쪽.

44) G-2 P/R #259, 1950.2.6~2.7.

대로 구성된 제2병단은 각각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덕유산에 근거를 두고 유격전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 빨찌산 활동의 특징은 ‘아성공격’(牙城攻擊)으로 불리는 대규모 공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⁴⁵⁾ 1949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만도 전남 나주, 순천, 함평, 장흥, 벌교, 조성, 경남 밀양, 경북 포항, 경주 등지에서 150여 개의 경찰용 전신주가 절단되었다.⁴⁶⁾ 교량 파괴와 기차 탈선 유도가 진행되었다.⁴⁷⁾ 부락에 인공기가 게양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⁴⁸⁾ 경찰지서 습격, 면사무소 금융조합 공격, 열차 습격, 재판소 공격도 감행되었다.⁴⁹⁾ 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려는 것이었으며, 남로당의 ‘9월 봉기설’에 의해 진행된 일이기도 하였다.⁵⁰⁾ ‘아성공격’은 공격목표를 정면에서 습격하는 전투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빨찌산 활동의 수위를 넘어 급격한 역량의 소모를 불러일으켰다.

빨찌산 전투의 격화는 이승만 정부에게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정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자신의 전력을 노출시키는 전투형태는 유격전을 전개해

45) ‘牙城’이란 ‘城의 內廓’, ‘大將이 거처하는 城’을 일컫는다. ‘牙城攻擊’이란 대도시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과감한 돌파행위를 가리킨다.

46) 미군사고문단보고서 G-2에 따르면, 1949년 7월 17일부터 9월 28일 사이에 빨찌산들에 의해 절단된 전신주만 해도 664개 이상이며, 다리 파괴, 철도 부분 손괴, 변전소 공격, 발전소 공격, 전력사무소 공격, 열차 습격, 면사무소 공격, 전화선 절단 등이 끊임 없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는 보고서에 드러나 있는 수치보다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G-2 P/R #151~#197 참조. 한편 북한은 1949년 8월에만 빨찌산들이 44,262명 동원되었으며(전남 16,760명, 경북 12,300명), 교전회수 759회, 철도 파괴 66개소, 전주파괴 1,590주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에서 산간에서 대도읍에 대한 ‘大量的의 攻擊’이 격증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사, 「祖國戰線과 武裝抗爭의 新段階」, 앞의 책 264쪽.

47) G-2 P/R #162~#165 참조.

48) G-2 #168, 1949.8.19~8.22; G-2 P/R #172, 1949.8.26~8.29.

49) G-2 P/R #172, 1949.8.26~8.29.

50) 남로당은 인민군이 9월에 남한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각 군당은 쌀과 돈을 준비하고,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빨찌산들은 인민군들의 안내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퍼뜨렸다. G-2 #177, 1949.9.6~9.8.

야 하는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빨찌산 활동을 지원해야 할 지방당 조직들이 거의 입산했기 때문에 이들이 원활하게 인적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해졌다. 사회적으로도 보도연맹 결성 등 반공주의 강화로 인해 남로당과 좌익세력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해서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격렬해진 빨찌산 활동을 토벌하기 위해 정부는 1949년 9월 28일에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⁵¹⁾ 효과적인 작전 전개를 위해 빨찌산들이 활동하는 주요 산악의 부락들이 소개되어 전라남도에서만 18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⁵²⁾ 1949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지리산 전투사령부는 유격근거지 일대의 첩보수집, 주민파악 등을 실시한 후 12월 1일에서 15일에 걸쳐 산록 일대에 대한 집중 수색작전을 실행하고, 12월 16일에서 1950년 2월 말까지는 전투지역의 복구·원호사업을 진행했다.

유격활동이 위축되는 동기에 산간 지역의 주민과 빨찌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이들을 고립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1949년도 동계토벌작전은 빨찌산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⁵³⁾ 오대산과 태백산 지구에서도 1949년 겨울부터 50년 초에 걸친 토벌로 입은 손실을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50년에 들어서서 남한지역의 인민유격대 3개 병단은 사실상 무력한 상태가 되었다. 남한 지역 빨찌산들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전쟁 직전까지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서 유격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장된 선전을 계속하였다.⁵⁴⁾ 김지희, 홍순석, 오락교 등이 남한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103쪽.

52) 『호남신문』 1949.10.25.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949년 10월 25일 현재 疏開된 전남도내 농민의 수는 18만 2,852명(3만 3,646호)이다. 빨찌산 토벌을 위한 부락 소개는 일제가 만주에서 실시했던 이른바 ‘匪民分離’ 공작과 유사성을 띤다(윤휘탁, 『日帝下 滿洲國의 治安肅正工作研究』, 일조각, 1996, 191쪽 참조).

53) 이와 같은 인식은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부터 나타났다. 군 인사들은 작전지역 내의 주민들을 ‘적화분자’와 격리시켜 선도교화해야 할 무지한 사람들로 인식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金智會叛徒 追擊行程座談』, 앞의 책, 1967, 93~95쪽.

빨찌산의 영웅으로 묘사되었다.⁵⁵⁾ 생존의 위기에 있는 빨찌산들의 처지는 역설적으로 악조건을 극복하고 활동한다는 맥락에서 칭송되었다.⁵⁶⁾ 북한의 간행물들은 유격전이 벌어지는 곳곳에서 인민과 빨찌산들이 혈연적 연계를 맺고 있다는 미담을 발표하곤 했다.

남로당 계열의 과장은 더욱 두드러져서 유격대가 활동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치열하게 활동한다는 내용을 자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실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949년 9월 말부터 1950년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수의 빨찌산 대원들이 사망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였다.⁵⁷⁾

빨찌산 활동과 그 토벌과정에서 교전하는 양자간의 인명손실 뿐만 아니라 소개, 학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크게 발생하였다. 국군은 빨찌산 토벌

54) 이승엽, 「조국통일을 위한 남반부 인민 유격투쟁」, 『근로자』, 1950년 1호.

55) 북조선민주청년동맹중앙위원회, 앞의 책, 「남반부빨찌산의 구감이며 모범인 김지희부대의 불멸의 공훈」, 「려수폭동군의 지휘자이며 지리산 전구 창설자의 한 사람인 홍순석 동무」, 「호남지구 빨찌산의 딸 오락교 동무」참조, 1950 : NARA, RG 242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

56) 이승엽은, “1950년 봄을 맞아 적의 병력을 대대적으로 섬멸하는 대담한 작전으로 용감히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남한지역 빨찌산들이 처한 상황과는 상반된 주장이었다. 이승엽, 「원수들의 동기도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1950년 6호.

57)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 일까지 연인원 12,336명의 빨찌산들이 556회 출현하였다. 군은 이들 중 365명을 사살하고 187명을 생포했으며, 4,694명의 빨찌산들이 투항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105쪽); 군 자료에 의하면 1949년 4월 30일의 오대산,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찌산들의 수는 700명이다. 이 숫자는 12월 15일에는 760명으로 약간 증가되었다가 1950년 6월 24일에는 460명으로 집계되었다. (육군본부 전사감실, 『共匪討伐史』, 1954, 附圖 2~4호); 한편 한 미군 보고서는 이 시기에 남한의 산악지대에 생존해 있는 빨찌산들을 약 1,300명으로 파악하였다. (FEC ATIS Research Supplement Interrogation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ssue No.3, *North Korean Guerrilla Operation to 30 September 1950*(1950, 11, 15), SN. 1582 :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에서 재인용)

작전으로 인해 훈련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개전시까지 정규군 3개 사단 이상의 병력이 지리산, 태백산 등지의 토벌작전에 투입되어 있어야만 했다. 토벌에 들어간 비용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순사건으로부터 전쟁 직전까지의 빨찌산 활동은 자생적인 단계에서 시작되어 북한 당국의 개입으로 한층 더 격렬하게 전개되었다가 이승만 정부의 토벌로 끝을 맞았다. 전쟁 전 빨찌산 활동은 '동족상잔을 할 수 없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빨찌산 투쟁과 그 토벌과정은 결과적으로 전쟁 이전의 '작은 전쟁'이 되어 버렸으며, 동족간에 주고받은 상흔이 깊게 남은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

3. 개전 이후 인민군 후퇴시기

전쟁 발발 직후 남한 지역에서 활동한 빨찌산은 크게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서 내려온 유격부대와 남한 각 지역의 산악에 남아있던 소수의 빨찌산 세력이다. 먼저 북한 당국은 전쟁 전 6월 초부터 남한 각 지역의 당 및 전투역량 수습을 위해 입북해 있던 남로당계 활동가들을 내려보내 정치공작과 유격구 건설을 시도하려 했다.⁵⁸⁾ 이러한 시도들은 유격전을 인민군 정규작전에 배합하여 전투력을 높이고 속전을 단행하려는 북한당국의 기본전략에 입각한 것이었다. 북한은 개전 초기에 정규군 부대내에 유격부대를 조직

58) 이중엽(서울), 이주상·여운철(충남), 김백동·이담래(전남) 등의 간부들이 당 역량 수습을 위해 서해와 동해를 통해 침투했다. (김남식, 앞의 책, 1984, 441쪽)

또한 북한 당국은 지역에 '군사정치공작대'를 파견하여 원활한 전쟁 수행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암군 출신인 문학성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전쟁 전에 월북해서 철도 관계 일을 하다가 강동정치학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고, 1950년 5월에 전북지대 군사정치공작대로 파견되어 활동하다가 전쟁을 맞았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자서전」, 『빨찌산자료집』 2, 1996, 517쪽)

운용하면서 유격전을 당국의 주요 군사전략으로 채택하여 전쟁국면에 활용하려 했다.⁵⁹⁾

김일성은 6월 26일 방송연설을 통해 승리 쟁취를 역설하며 빨찌산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지시했다.⁶⁰⁾ 남한 각 지역에 있는 빨찌산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임무가 강조되었다. 그 내용은 정치적으로는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인민적 지반을 확대시킬 것, 군사적으로는 후방을 교란하고 인민군과 협동할 것 등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도 6월 27일, 빨찌산 운동 확대와 ‘곳곳에서’ 빨찌산 투쟁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⁶¹⁾ 서울이 점령된 6월 28일의 방송연설에서는 빨찌산 활동수위의 기대폭이 훨씬 높아져 후방교란 임무와 함께 유격전을 통해 인민폭동을 일으켜 인민군을 원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⁶²⁾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지시에 대해 개전 직후 남한 지역의 빨찌산 역량은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개전 직전 남한 각 지역으로 파견된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당조직을 재건하여 인민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1950년 3월 김삼룡·이주하 등 서울지도부가 체포된 남로당 조직은 거의 파괴되었고, 재산 유격대들 또한 1950년 초반에는 유격전 전개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북한지역에서 직접 파견한 유격부대의 군사적 활동 이외에 재산 유격대와 기존의 남한 지역 당 조직을 통해 인민군 남진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⁶³⁾ 전쟁 전 정치공작을 위해 파견된 인원 일부는 선박고장으로 인해 소기

59) 군사적 측면에서의 북한 유격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양영조(2002), 김광운(2003)의 앞 논문을 참조.

6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1~1952년, 15쪽 : 조 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3권, 1954, 9~10쪽.

61) 국사편찬위원회,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편지(1950년 6월 27일)」, 『북한관계자료집』 29, 1998, 136~147쪽.

62)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조국 수도 서울해방에 제하여 전국 동포들과 인민 군대와 서울 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 『김일성선집』 3, 1954, 14~15쪽.

63) 전남지역에서는 인민군 점령 후 김백동, 박영발, 김선우 등으로 도선거위원회가 구성

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전쟁 발발을 맞기도 했으며, 육로로 침투한 공작원들도 정규 인민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기대되었던 정치공작을 통한 봉기 주도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⁶⁴⁾

개전 직후 6월 말까지 산악에 소재하고 있던 빨찌산들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⁶⁵⁾ 산악지역의 빨찌산들은 외부의 소식과 고립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발발 소식을 미처 알지 못해서였을 것이다.⁶⁶⁾ 개전 후 날짜가 경과하여 인민군들이 급속하게 남진해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전쟁수행을 위한 빨찌산들의 전투행동은 7월 중순경에서야 활발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빨찌산들의 행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빨찌산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인민군 점령지의 각종 행사와 의용군 초모대회(招募大會)에 연사로 나섰다.⁶⁷⁾ 빨찌산 활동가들이 자신의 연고지로 돌아가 점령지역의 당 및 사회단체 활동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았다. 빨찌산 참가자, 또는 유격활동에 식량원조, 연락업무 대행을 해준 협력자가 점령지역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⁶⁸⁾

인민군이 진주하지 않은 지역의 빨찌산 세력 일부는 경찰들과 전투를 벌였다. 경남 산청에서 활동하던 지리산 빨찌산들은 7월 13일에 경남 산청군에서

되었다. 이 중에서 김백동은 정치공작을 위해 전쟁 전에 파견되었지만 개전 후에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 각급 인민위원회선거 승리적으로 진행중!」, 『해방일보』 1950.8.28.

64)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1권, 1983, 180~181쪽.

65) 國防軍史研究所, 美國中央情報局 情報報告書 16권, 1997, 8쪽.

66) 입산하여 활동하던 전남도당의 한 간부의 증언에서도 1950년 6월 27일에야 개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지아, 『빨찌산의 딸』 상, 1990, 212~214쪽.

67) 의용군을 모집하는 결의대회에서도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찌산들이 그간의 경과를 선전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조국을 위하여 바치자. 경전 로동자들 속속 의용군에!」 『해방일보』 1950.7.8 참조.

68) 「빨찌산을 도와 활동한 녀투사, 영예의 위원으로 당선」, 『해방일보』 1950.7.29; 「全南選舉 勝利的으로 完遂, 빨찌산과 地下組織闘士들 多數 被選」, 『조선인민보』 1950.9.5 참조.

국군 및 경찰들과 교전했다.⁶⁹⁾ 전남 영광 서해안에서 활동하던 빨찌산 부대도 7월 13일에 부근의 염산면 봉남리에 출현해서 군용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그 지역의 경찰을 상대로 교전했으며, 전남 화순 방면에서 활동했던 지리산 빨찌산의 한 부대도 그 지역의 한천면 일대를 잠시 점령하고, 주민들에게 정치선전을 진행했다. 7월 17일에는 장흥, 담양, 화순, 광주, 광양군 등에 빨찌산들이 나타나 우익 인사를 검거하고 구금되어 있는 좌익 관계자들을 석방하는 한편으로 군경과 대치하여 동리를 일시적으로 점거하기도 했다.⁷⁰⁾

인민군이 빠르게 남진해 오면서 지리산, 경남북, 전남 일대에서 기존 유격대 조직이 이에 호응하는 무장활동, 즉 ‘배합협동’ 활동을 전개했다. 경북 지역 유격대는 6월 25일, 강원도 삼척에서 활동한 빨찌산들은 6월 28~29일에 각각 인민군 부대와 합류하여 전투를 벌였다. 7월 27일에는 전쟁 이전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배철이 이끄는 유격대가 대구 비행장을 이틀간 점령했다. 이현상이 지휘하는 지리산 빨찌산부대는 8월 10일에 대구 주변 달성군 가창면 일대에서 미군 통신부대를 습격해서 미군 20여 명을 살상하고 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였다. 이어서 8월 25일에는 경남 창녕에서 500여 명 규모의 미군 사령부를 기습했다.⁷¹⁾

전쟁 전 제2병단을 형성했었던 이현상의 지리산유격대는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핵심으로 한 부대로서 낙동강 계선에서 활발한 전투를 전개했다.⁷²⁾ 이 빨찌산 부대는 9월 8일 경북 청도 지구로 진출하여 인민군 부대와 협동작전을 벌였으며, 전투과정에서 지역 청년들과 피난민들이 유입되어 유격대의 인원은

69)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 1951~1952年, 411쪽.

70) 조선중앙통신사, 위의 책, 같은 쪽.

71) 조선중앙통신사, 위의 책, 같은 쪽.

72) 조선중앙통신사, 위의 책, 같은 쪽 ; 한편 한 미군보고서는 1950년 7월 말, 부산 근방에서 싸우고 있는 빨찌산들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있는데, 이들이 서남 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Partisans Fight in Pusan Area」: NARA, RG 263, The Murphy Collection on International Communism, 1917~58, Entry Murphy Papers, Box 69(3).

점점 증가했다.⁷³⁾

전쟁 전에 입산해 있던 남로당 지방당 조직들은 산을 내려와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당과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는데 참여하였다. 개전 직후 기존 유격대원들의 행보는 인민군 점령기관에 당 정권기관 복구와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남진하는 인민군과 협동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것, 군정과 우익인사 숙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 이외에도 인민군이 진주하기 이전에 일부 지역에서는 구 빨찌산들은 부락에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⁷⁴⁾

1949년 6월 말 조국전선 결성과 남북로동당의 합당을 계기로 해서 북한 당국은 남한의 빨찌산 투쟁을 적극 지원하였고, 그로 인해 초기의 자생적 성격은 약화되고 북한의 지원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강력해진 바 있었다. 개전 이후에는 남한에서도 남북로동당의 합당이 공식화되어 기존의 빨찌산 부대들은 인민들의 자발적인 무장항쟁이라기 보다는 조선로동당의 지도를 받는 무력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그들의 활동은 북한 당국의 전쟁정책과 조선로동당의 지시에 의거하게 되었다.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개전 후 빨찌산 활동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활동의 지도주체가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유격투쟁의 질과 양이 급속히 변모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 9월, 전쟁은 낙동강 계선에서 전선교착상태를 맞았다.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의 퇴로는 차단되었다. 각 지방당에는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하고, 산간지대의 부락을 접수하여 식량을 비축할 것, 입산경험자와 입산활동이 가능한 자들을 입산시킬 것, 기타 간부는 후퇴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시⁷⁵⁾, 즉 질시정연한 후퇴를 보장하고, 지방당 조직을 규합해서 빨찌산 투쟁을 시작하는 임무가 주어졌다.⁷⁶⁾ 그러나 이 시기에 후

73)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 1951~1952年, 412쪽 참조 : 남부군 참가자와의 면담, 2003년 5월, 서울.

74) 진북지역 빨찌산 참가자와의 면담, 2003년 3월, 서울.

75) 김남식, 앞의 책, 1984, 455쪽.

76) 경남도당의 경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퇴조건을 지키거나 질서있게 움직이기는 어려웠다. 인민군들은 무질서하게 퇴각했고, 지방당 조직과 각종 사회단체들도 혼란하게 움직였다. 퇴로가 차단된 상황적 긴박함 속에서 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관계자와 점령기간 협조자들이 후퇴길에 나서 입산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조직된 남한 지역 빨찌산 활동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지역의 도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빨찌산 활동과 이현상이 지휘하던 지리산 빨찌산의 남부군 결성과 활동이 그것이다.

각 지방당은 자리잡고 있던 도시에서 야산지대로, 다시 산악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⁷⁷⁾ UN군과 국군이 진주하지 않은 면 단위의 지역에는 당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전남북도당과 경남도당은 후퇴과정에서 입산자들을 규합하여 유격대를 편성했다. 면 단위에는 열성당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유격대들도 있었으나 도당 유격대 편제가 정비되면서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통합되거나 개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전남도당은 9월 28일 광주에서 후퇴를 시작했다. 10월 3일에 경찰과 미군이 광주에 들어오자 후퇴하지 못한 좌익세력과 인공 지지자들은 무등산, 불갑산, 지리산, 백아산, 백운산 등지로 입산하였지만 야간에는 여전히 시내에 나타나곤 했다. 국군 제11사단이 10월 15일부터 광주에 진주하게 되자 이들은 활동 거점을 더 깊은 산악으로 이동하였다.⁷⁸⁾ 전남도당은 백아산에서 전남

“우리에게 제기된 임무는, 인민군대의 후퇴를 조직적으로 보장하며 적의 침습을 받은 지역들에서 인민들을 당과 정부 주위에 집결시켜 적들을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유격운동의 강화로서 당과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의 지하활동을 보장하고 원수들의 군사행동질서를 마비혼란시키며 군사후방을 교란하며 도로 교량들을 파괴하며 적들의 집단병력에 타격을 주워 유생력량 및 무기탄약을 탈취하는 등 행정질서를 마비시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2, 1996, 42~43쪽.

77) 각 지방당 조직이 후퇴시기에 처음부터 산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다. 하동에서 활동했던 한 빨찌산 참가자는, ‘화개장→화개굴→세석’을 거쳐 지리산으로 입산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앞의 책, 1996, 2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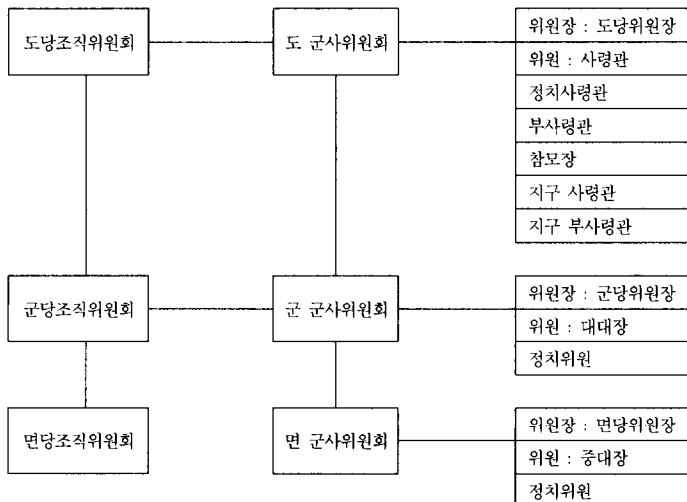
78)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2, 1991, 219~220쪽.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도당부위원장인 김선우가 사령관으로 유격활동을 시
휘했다.

경남도당은 9월 24일부터 임시 도기관 소재지였던 진주에서 후퇴해 온 당,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산 후퇴하고 있던 인민군과
기관원, 의용군, 지역민들로 유격대를 편제했다. 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남
도, 진주시, 진양군의 활동가들은 9월 24일 새벽에 진주를 탈출해서 산청을 거
쳐 함양에 도착했으며, 함양군 휴천면에서 경남도 유격대가 조직되었다.⁷⁹⁾

경북지역에서는 경북도당 위원장 박종근과 남도부가 각각 산악지역과 동해
안 방면에서 유격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도당은 회문산을 근거지로, 도당위원
장인 방준표를 사령관으로 유격대를 편제했다. 각 지방당들의 후퇴와 입산,
유격투쟁은 당 조직을 그대로 산악에 옮겨놓은 것과 유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각 지역마다의 활동양상과 조건이 매우 상이해서 지역별로 입산하기까

79) 장상환, 「한국전쟁기 진주지역의 사회변동」, 『慶尙史學』 제12집, 1998, 112쪽; 경남
도의 유격대 편제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림대아시아문화
연구소, 『빨찌산자료집』 2, 1996, 110쪽에서 재구성)



지의 과정과 유격대 운용방식, 역량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기간의 빨찌산 유격투쟁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전쟁기 빨찌산 활동은 그 이전에 비해 규모와 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다. 후퇴시기의 입산과 활동은 상황적 강박을 강력하게 받고 있었다. 제주 4·3과 보도연맹원 검속 피살, 전쟁 전 토벌과정에서의 부락소개와 인명피해를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민군 점령정책에 협력한 이들이 입산하는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활동가의 가족들까지도 입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퇴 초기에는 입산인구가 비효율적으로 증가했다. 한 경찰통계에 따르면, 후퇴 당시 전남지역의 빨찌산 병력만 해도 5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로 이들 중 무장한 인원은 전체의 20% 가량에 불과했다.⁸⁰⁾ 지방당 조직이 입산해서 유격대로 편제를 바꾸고 있는 동안 이현상의 지리산 빨찌산 부대도 북으로 후퇴했다. 이현상 부대는 11월에 강원도 평강군에 도착했다.⁸¹⁾ 이 시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시 뒤바뀌고 있었다. 강원도에서는 이승엽이 후퇴해 오는 인민군과 당 활동가, 점령기간 협력자들을 유격부대로 편제하여 남하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현상의 지리산 빨찌산 부대는 이곳에서 대열을 정비하여 조선인민유격대 독립4지대라는 명칭으로 1950년 11월 중순부터 다시 남하하였다.⁸²⁾

조선인민유격대 독립4지대에는 기존의 지리산 빨찌산 부대의 대원들 이외에도 현지에서 상당수의 대원들이 추가되어 총 8백여 명 규모로 승리사단, 혁명지대, 인민여단, 사령부 직속 부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양구, 홍천, 강릉, 영월, 단양을 거쳐 남하하면서 51년 1월 문경지서 점령, 10여일간 죽령 국도 차단 등의 활동을 벌였다.⁸³⁾

80)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앞의 책, 1991, 219쪽.

8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281쪽.

82) 육군본부, 앞의 책, 1954, 34~35쪽.

83)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앞의 책, 1971, 281쪽.

그러나 부대의 내부적인 취약점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대 편제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새로 흡수된 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시급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남하하는 도중에서도 부대 내 당원확장 사업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독립4지대 중 혁명지대 지대장이었던 김재연 부대에서는 당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부대 당부 건설을 목표로 전투를 치르며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당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당원 확장을 논의하였다.⁸⁴⁾ 김재연지대 대원 108명 중에서 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원은 24명뿐이었다. 제1, 2구분대와 부대사령부로 구성된 이 부대의 당원 증가 사업을 위해 남부군단의 정치주임이 파견되었다.⁸⁵⁾ 한국전쟁기의 남한 빨찌산 부대는 기층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기 보다는 당 조직을 중심으로 상층의 지도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결속이 매우 강조되었다.

독립4지대는 1950년 12월부터 명칭을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바꾸어 활동하기 시작했다.⁸⁶⁾ 이들의 남하는 그 자체가 빨찌산 전투 활동의 연속이었다. 남부군은 소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1951년 5월 26일 새벽에는 충북 도청소재지인 청주를 습격했다.⁸⁷⁾ 청주 습격은 여수 14연대 출신인 김홍복이 지휘하는 승리사단의 결사대들에 의해 감행되었다. 이들은 청주 부근 가리산에 잠복하고 있다가 26일 새벽, 도청과 경찰청, CIC 본부, 검찰청 등을 습격하고, 수감자 129명을 석방한 후 퇴각하였다.⁸⁸⁾ 석방된 수감자 중 일부는 빨

84)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김재연지대당회의록」, 『빨찌산자료집』 1, 1996, 3~4쪽.

85) 위의 책, 1~17쪽.

86) 1950년 12월 12일부터 이전의 독립4지대가 ‘남부군’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15쪽.

87)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Ⅱ)」, 『빨찌산자료집』 4, 1996, 132쪽.

88)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에 따르면, 청주 습격 당시 빨찌산들의 주력은 약 80명이었으며, 경찰관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충북도청, 검찰청, CIC 본부, 검찰청이 파괴되고, 중화기 18정과 소총 250정, 탄환 약 10만 발을 빨찌산들에게 빼앗겼다. 또

찌산 대열에 합류하였다.

남한지역의 빨찌산 유격활동 중 도청소재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점거했던 것은 남부군의 청주 점거가 유일했다. 이러한 정규전에 가까운 전투 형태는 남부군이 이동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부군이 효과적인 유격전을 전개하며 남하할 수 있었던 것은 戰前부터 활동하던 14연대 출신의 군사참모들이 그간의 유격투쟁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며 부대내의 주력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주 작전 이후 충북과 경북으로 분산·남하하였던 남부군은 약 2개월 후 기백산에서 합류하여 덕유산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이현상은 전 충남도 인민위원장 여운철과 함께 6개 도당 수뇌부 회의를 개최하여 남한 지역 빨찌산 부대를 통일적 지도하에 일원적으로 재편할 것을 결정했다.⁸⁹⁾ 전남과 경북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당들은 남부군에 새로이 편제되어 지리산을 거점으로 설정하였다.⁹⁰⁾

남부군단은 전구를 전북 북부 및 충남, 전북 남부지구 등 2개로 나누고, 도당 군사부를 사단체제로 개편·배치하였다. 충남 빨찌산은 68사단, 전북 북부 빨찌산은 45사단, 전북 남부는 46사단과 53사단으로 개편했고, 경남지구는 유격대를 통합하여 57사단으로 편제했다. 남부군단은 81사단, 92사단,

한 청주 감옥 수감자 133명이 중 129명이 빨찌산들의 습격으로 탈옥하였다.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Ⅱ)』, 『빨찌산자료집』 4, 1996, 132~133쪽; 『승리의 길』 제 11호(1951.6.15) 『빨찌산자료집』 7, 14~16쪽; 『전남 빨찌산』(1951.6.10) 『빨찌산자료집』 7, 316쪽.

89) 이현상과 여운철은 강원도 후평에서 이승엽에게 각각 6개 도당의 유격대 지도와 6개 도당에 대한 지도권을 일임받았다고 한다. 김남식, 앞의 책, 1984, 458쪽.

90) 남한 6개 도의 유격대를 통일적으로 운용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남부군 기관지인 『승리의 길』 1951.9.26일자에는, 「남부지방 六개도 남녀빨찌산들에게 주는 호소문」이 실렸다. 이 호소문은 남부지방 유격대 통일문제가 갖는 군사정치적 중요성을 제고할 것과 군율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남한 6개 도당 중 전남도당은 남부군 사단체 개편에 참가하지 않았고, 경북도당은 지리적인 여건상 남부군단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지 않고 활동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호소문은 남부군단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7, 1996, 29쪽.

602 사단을 직속으로 편제했다.⁹¹⁾

사단제 편제는 이후 빨찌산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데, 청주 전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정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1951년 하반기부터 빨찌산들의 공격태세는 격화되었다.⁹²⁾ 남부군단의 주력은 전북, 경남, 지리산 일대의 동리와 인근 지서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인명손실을 보충할 별다른 방도를 갖지 못했다는 면에서 유격대 활동의 정규전화는 장기적으로 역량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4. 지대 및 지구당 개편기

1950년 9월말을 기점으로 후퇴했던 북한 당국은 10월 11일,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통해 인민군 장병·남녀 빨찌산들의 철저 항전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부득이 퇴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남겨놓아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⁹³⁾ ‘중국인민지원군’과 인민군의 공세기에 접어드는 1950년 12월 9일, 김일성은 다시금 「평양시 해방에 제하여」라는 방송에서 “후퇴하는 적들에게 숨쉴 사이를 주지 말며 새 방어선을 구축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연설하였다.⁹⁴⁾ 곧이어 1951년 1월 2일의 최고사령부 명령 2

91) 육군본부, 앞의 책, 1954, 附表 제2호 참조.

92) 이와 관련하여 1951년 9월을 전후해서 몇 달간 소강상태를 보이던 빨찌산 활동이 9월 말부터 새로이 제공된 ‘리더십’에 의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미군 정보 보고를 참조할 수 있다. ‘Intelligence Report, No. 5750 : The Communist Guerrilla Problem in South Korea’ : NARA, RG 226, Postwar Japan, Korea and Southeast Asia(5).

93) 조선중앙통신사, 앞의 책 1951~1952年, 21~23쪽.

94) 위의 책, 24쪽.

호는 『적후에 있는 유격대들의 활동을 확대발전하는데 대한 명령』으로 제 6 지대를 결성하여, ‘적의 조직적 후퇴를 불허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동년 1월 25일 최고사령부 명령 제 74호는 ‘전인민을 유격조직화함으로써 유격대의 기관을 더욱 공고 확대 강화시킬 목적’으로 충남북 일대에 2지대를 결성하여 생산유격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명령했다.⁹⁵⁾ 이 시기에 북한 지도부는 남한 지역의 빨찌산 부대를 인민군의 남하를 돕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려 했다. 남한 지역에는 각 도당조직 체계를 보유하고 지역적 범위에 한정하여 군사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인 8개의 ‘지대’로 유격대를 재편성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⁹⁶⁾ 지대의 형태는 북한 내 대남사업 관련자들이 조직해서 남하시킨 부대와 남한 빨찌산 조직이 개편된 것이 파악된다.

1지대는 50년 11월에 이승엽이 직접 조직한 유격 1~3여단을 토대로 인민군 점령당시 서울시당위원장을 지낸 김웅빈을 지대장으로 하여 편성되었다. 이 부대는 주로 서울 경기 출신 후퇴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6지대는 50년 9월 29일에 춘천에서 만들어진 ‘929’ 부대가 개편된 것으로, 윤상철을 지대장으로 하여 50년 10월 말부터 전투를 치르면서 남하했다. 이 부대는 1951년 1월 5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경비, 선전 등의 활동을 했다.⁹⁷⁾ 3월에 재월북한 6지대는 1951년 5월에 충북 일대로 다시 침투했으나 속리산에서 지휘부 전사로 인해 부대가 분산되었다.⁹⁸⁾

기존의 남부군 사단체계는 해체되어 충남도당이 6지대, 경남도당이 8지대, 전북도당이 7지대, 경북도당이 3지대, 남부군은 4지대로 편성되었으나 지대 개편 지령은 통신상의 여건으로 남한 내 빨찌산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가 지리산에 도착한 것은 지대 개편 명

95)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빨찌산자료집』 1, 29~31쪽 참조.

96) 김남식, 앞의 책, 1990, 156쪽.

9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사업총결보고」, 『빨찌산자료집』 1, 1996, 197쪽.

98) 김남식, 앞의 책, 1990, 157쪽.

령의 실효성이 상실된 1951년 10월이었다.⁹⁹⁾

남한지역에서 활동했던 빨찌산 부대들 중에 지대 개편 명령을 1951년 1월 중으로 실현한 부대는 경북도당 유격대였다. 경북도당부는 1951년 1월 중순에 영주군 부석면으로 남하해 온 인민군 2군단을 만나 중앙당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당은 1월 20일에 유격지대 결성 명령을 전달받고, 곧 지대 개편에 착수하여 3월 말까지 19회의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경북도당의 경우도 道内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빨찌산들과 당 간부들이 발병하여 낙오되었기 때문에 활동인원을 구성하는데 곤란을 겪었다.¹⁰⁰⁾ 또한 경찰, 방위대와의 전투에서 인원과 화력의 열세를 느꼈기 때문에 지대로서의 군사활동은 3월 말에 종료하고, 부대별 분산활동에 들어갔다.

1951년 4월,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작전국 직속으로 전쟁 이전의 경북도당 위원장 배철을 책임자로 하는 유격지도처가 설치되어 남한 각 지대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 지구당 개편지시 이후 이 유격지도처는 유격대 지도 및 공작원 침투 등을 담당하였다.¹⁰¹⁾ 이해 10월경부터 황해도에는 금강정치학원이 설립되어 남한 지역 지하당 간부와 유격대 지휘관, 대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52년부터 남한에 존재하는 3·4·5 지구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남파되고, 박승원, 윤순달과 다수의 남로당계 간부들이 이승엽의 지휘를 받으며 대남공작을 진행하여 52년 8월부터 10월까지 무장부대를 침투시켰지만 대부분은 실패했다.¹⁰²⁾

99) 김남식, 앞의 책, 1984, 462쪽.

100) 경북도당이 구성한 제2지대의 대원중에서 행군 도중 열병으로 인한 낙오자가 103명이었으며, 행군하는 과정에서 경북 지역 내의 지하당 단체들과의 연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북도당위원장 박종근은, 유격대 활동이 미진한 것에 대해 "실제적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군사간부와 지방 당일꾼들이 배합된 유격대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허가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다. 경북도당이 1951년 1월에 지대로 개편되기는 했으나 급조된 지대로서의 군사적 정치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1, 1996, 386~389쪽.

101) 김남식, 앞의 책, 1984, 463쪽.

1951년 중반에 전선은 38계선에서 교착되고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남한 지역의 빨찌산들은 기존의 유격부대들을 남부군단의 사단제 형태로 개편하고 있었다. 지대를 구성하라는 명령도 남한 빨찌산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인 1951년 8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정치위원회는 「미해방지구에 있어서의 우리 당사업과 조직에 대하여」라는 94호 결정서를 채택하여 각 유격대 체제를 지대에서 당사업을 주로 하는 지구당 체제로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결정서는 '전쟁 이후의 빨찌산 투쟁이 결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앞으로 당사업 강화를 위해 종래의 행정지역에 따른 조직체를 보류하고 잠정적으로 5개 지역을 설정하여 지구조직위원회를 조직, 일체의 당사업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었다.¹⁰³⁾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에는 남한 유격투쟁을 바라보는 북한지도부의 냉각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지도부가 남한 유격투쟁이 전쟁국면을 전환시키는데 일조하거나 전쟁수행에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전 후 남한 빨찌산 투쟁을 지원하려는 북한당국과 남로당계의 노력이 산악지역의 유격부대의 활동과 결합된 경우는 거의 없다. 51년의 일부 기간 경북도당 유격대가 재남하하는 인민군 부대와 우연히 만나 이승엽 등 일부 간부와 연락을 취했던 정도였다.¹⁰⁴⁾ 북한 지도부는 남한 유격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연설, 선전, 출판을 통한 유격대 독려와 상황의 추이에 따른 상층의 지시가 계속되었지만 재산지역의 유격대가 이를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지나치게 멀

102) 김남식, 앞의 책, 1990, 162쪽.

103)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앞의 책, 1971, 476쪽.

104) 경북도당은 1951년 1월 13일, 경북 영주군 북석면 남대리에서 재진격해온 인민군 부대와 연결되었다. 이 부대를 통해 주전산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게 된 경북도당은 소백산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준비하던 중 1월 20일에 지대개편 명령을 하달받았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1, 1996, 386쪽.

고, 전달되는 시간이 지체되었다.¹⁰⁵⁾ 중앙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남한에서 유격대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낙동강 이서의 경남·전남북 전 지역은 제5지구당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락수단의 미비로 52년 5월을 전후한 시점에서야 지리산 유격지구에 전달되었다.

1951년 하반기부터 빨찌산 부대의 사단편제로 인한 대규모 공격과 기습은 대대적인 토벌전을 초래했다. 후방의 치안문제가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국회는 1951년 10월 31일에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비소탕'에 대해 관계당국과 토의하여 후방치안을 결의하였다.¹⁰⁶⁾ 육군본부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 및 치안유지를 위해 호남 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섬멸할 목적'으로 국군 2개 사단으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것을 계획하여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과 제 8사단(사단장 최영희)을 토벌부대로 설정, 그 사령관에는 백선엽이 임명되었다. 국군 2개 사단 이외에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등이 배속되었는데, 60여 명의 미 고문단이 통신·연락 및 심리전을 지원하였다.

사령관의 이름을 넣어 설치된 '백야전사령부'는 1951년 11월 25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대전 이남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백야전 토벌은 모두 4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 1기는 지리산 지구 총공격, 2기는 전북과 경남지역 거점 동시 공격, 3기는 1·2기 작전 지역 재수색, 4기는 빨찌산이 이동한 타지역 토벌로 계획되었다. 또한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거점 수비대로 부대를 구분하여 작전을 실시하여 기동타격부대는 빨찌

105) 1951년 11월 10일, 전남도당 사령부에 소환된 구려군 출신 권상수는 다른 대원 약간 명과 함께 중앙당에 보고할 문건을 소지하고 복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태백산맥을 따라 복상하면서 발왕산과 오대산을 지나 가리봉에 도착했을 때에는 1952년 9월이었다. 군경을 피해 산악 루트를 따라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는 과정에도 10개월 정도가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복상하지 못하게 된 권상수는 9월 4일에 국군 8사단 10연대 3대대 의무중대에 투항하였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美軍 CIC 情報報告書』 3, 1996, 432~433쪽.

106) 국회사무처, 『(제11회 임시국회) 비공개회의속기록』.

산들의 주력을 포착하고, 저지부대는 퇴로를 차단하면서 기동타격부대 지원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¹⁰⁷⁾

기본적인 장비와 인원, 무장면에서 빨찌산 부대들은 정규군에 약세를 띠었다. 압도적인 화력과 공군력의 지원 뿐만 아니라 빨찌산들이 사단제 편제 이후 대규모 병력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포착이 쉬웠다는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다. 백야전 작전은 빨찌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토벌이 시작되면 이를 따돌리고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빨찌산 지도부도 백야전이 대규모 공세로서 이 토벌이 “장기적·대규모적·입체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¹⁰⁸⁾ 빨찌산들 내부에서도 식량부족과 이탈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군 기록에 의한 바 사망 5,009명, 생포 3,698명, 투항 45명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되었다.¹⁰⁹⁾

대규모 토벌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틈새가 보일 때면 빨찌산들의 공격이 전개되었다. 51년 12월에도 지서 일부와 경찰 습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토벌을 막아낼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포위망 탈출을 위해서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토벌과정에서는 이에 맞서는 것보다도 역량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백야전 토벌 이후 남부군도 주력의 상당수를 손실했다. 기존의 사단제 편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직속 사단을 김지희와 박종하 부대로 개칭했다. 1952년 1월 하순부터는 부대 명칭도 독립제 4지대로 원상복귀했다.¹¹⁰⁾ 국군의 후속적인 토벌은 계속 이어져서 국군 제 1사단의 토벌(52.7.13~8.4)이 지리산, 회문산, 덕유산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10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190~191쪽.

108)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2, 1996, 304~307쪽 참조.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216쪽.

110) 남부군 기관지인 『승리의 길』을 검토하면, 1952년 1월 26일부터 ‘조선인민유격대 독립제 4지대’로 발행주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2, 1996, 57쪽.

1952년 2월 21일자로 최고사령부 유격지도처에서는 「전투력 향상 및 그의 정상적 유지대책에 관하여」라는 지령을 통해 강한 적과 장기전을 전개하는 것을 피하도록 지시하였는데,¹¹¹⁾ 이 지시는 주력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켜 단 시간 내에 기습을 끝내고 신속하게 은밀한 거점으로 진입할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이 빨찌산 활동의 원칙적인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강조된 것은 대규모 편제로 소모와 손실이 컸던 남한 유격투쟁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는 「미해방지구에 있어 우리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111호 결정서'를 채택하였다.¹¹²⁾ 이 결정은 기간의 남한 유격활동이 무장투쟁에만 편중하고 당조직사업을 소홀히 했으며, 유격부대가 진지전을 전개하여 불리한 결과를 낳은 것을 비판하고, 산악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진출하여 당조직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¹¹³⁾ 기존 빨찌산 투쟁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으로서 투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전력을 상실하고, 인민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북한지도부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지시가 남한 지역 빨찌산의 쇠퇴를 막지는 못했다. 제 5지구당 개편 결정사항이 뒤늦게 전달되기도 했지만 제때 전달되었다 해도 산악지역의 유격대가 단기간에 지하로 침투할 수 없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었다. 급격한 인력손실과 전력 약화를 겪은 남한 지역 빨찌산들은 1952년 5월에 들어서서야 중앙당의 지시였던 5지구당을 결성할 수 있었다.¹¹⁴⁾ 지리산에 모여 지구당 건설을 토의한 남한 빨찌산 지도부는 도당을 해체하지 않고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제 5지구당은 위원장 이현상, 부위원장 박영발(전남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 전남도당 부위원장 김선

111)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빨찌산자료집』 1, 1996, 32쪽.

112)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앞의 책, 1971, 482~487쪽.

113) 김운석편, 『北韓傀儡集戰術文獻集』, 1956, 369~375쪽.

114)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앞의 책, 1971, 471쪽.

우, 경남도당 부위원장 김삼홍, 전북도당의 조병하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장 밑에는 조직부, 선전부, 유격지도부, 기요과, 통신과, 경리과의 부서를 두고, 지구당 산하에는 소지구당을 조직하였다. 전북도당은 동·남·북부 지도부를 구성하고 전남도당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도당은 중부와 북부 소지구당을 구성해서 지구당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¹¹⁵⁾

전쟁 이후 조선로동당의 남한 유격대 지도방침은 후퇴시기부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후퇴기에는 남한의 당 조직을 지하화하고, 산악에 유격대를 조직하여 인민군 후퇴를 도울 것, 중국군 참전으로 인한 공세기에는 유격지대로 재편하여 후방에 제 2전선을 형성하고 군사활동에 전념하여 인민군의 재전격을 도울 것, 전선 교착기에 들어서는 당 사업 위주의 지구당체제로 전환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대개편 결정부터 남한 재산 유격대는 제때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을 뿐더러 후방 교란이라는 긴박한 활동 속에서 중앙당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5. 맺음말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한 1950년 10월초에 접어들면서 국군과 UN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비례하여 빨찌산의 수도 늘어났지만 국군은 후방지역작전을 전담할 3군단을 창설하여 10월 중순부터 강원, 영남, 호남지역에서 동계 토벌작전을 전개했다.¹¹⁶⁾ 1950년 겨울부터 51년 3월 말까지의 빨찌산에 대한 군경 토벌의 진행 결과, 토벌 주체 스스로 '호남지구 공비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에 걸

115)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위의 책, 같은 쪽.

1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154쪽.

쳐 진행된 백야전 토벌은 남한 산악지역의 빨찌산들의 활동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백야전 사령부가 철수한 다음에도 토벌은 지역별로 계속 진행되었다.

1953년 하반기까지 남아 있는 남한 지역 유격대의 총 인원은 군 기록에 의거, 9월 24일 현재 978명으로 추산되었다.¹¹⁷⁾ 제 5지구당이 해체된 후 박영발, 방준표, 김선우 등 일부 유격대 지도부가 생존해 있었으나 조직적인 활동은 불가능했다.

1953년 8월 26일, 제5지구당 조직위원회는 지리산 빗점골에서 실질적으로 5지구당 해체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이승엽이 여운철과 이현상에게 각각 각각 남부지방 6개도의 당지도사업 권한과 유격부대에 대한 영도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빨찌산 운동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제 5지구당 결정서」 9호를 채택했다. 특히 「결정서」 9호는 경남 빨찌산부대의 파괴와 경남 빨찌산 간부가 전멸한 것을 지적하면서, 박헌영·이승엽에 대한 숙청을 지지하였다.

제 5지구당은 9월 6일, 「제 5지구당 결정서」 10호를 채택함으로써 해체되었다.¹¹⁸⁾ 생존한 유격대 간부와 대원들은 소규모 활동을 지속했지만 조직적인 활동으로서의 유격전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북한의 시각에서도 남한 빨찌산 활동은 실패한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빨찌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되었으며, 1956년 12월 31일에 남한 전역에 남아 있는 빨찌산의 수는 모두 43명으로 집계되었다.¹¹⁹⁾

117) 위의 책, 259쪽.

118) 육군본부 정보 참모부, 앞의 책, 1971, 545~546쪽.

1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8, 348쪽.

군 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빨찌산들의 인원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에서 재구성)

50. 6. 24	50. 10. 31	51. 1. 31	52. 1. 22	52. 3. 10	52. 7. 1	52. 8. 4	52. 11. 6	53. 9. 24
460	15,000	12,557	4,793	3,026	2,070	1,830	1,388	978

그런데, 시기별로 군경이 '전과'로 발표한 수치는 위의 변천표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무부는 1951년 4월 13일까지 경찰 전투대의 6개월간 종합 전과가

여순사건 직후 점화된 남한 지역의 빨찌산 투쟁은 6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개되면서 큰 희생과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빨찌산 활동은 전쟁을 전후해 일정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으나 전쟁 진행과정에서 유격대 형성 초기의 지향은 실현되지 못한 채 전쟁정책에 규정되고, 그에 부합하는 활동을 요구받았다. 빨찌산 활동으로 인한 군사적 성과가 미미했었던 것만은 아니다. 전쟁 직전은 물론 한국전쟁기에도 3~4개 사단이 빨찌산 토벌에 투입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의 소모적인 유격부대 운용, 남한 정부의 적대적 대응과 진압, 장기간의 물자보급 요구와 토벌에 시달린 지역 주민들의 외면 속에서 이들의 활동은 소멸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극단적인 상황에서 유격대 활동의 자생성과 일각에서 확인되는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은 전쟁수행과정 속에 묻혔다.

빨찌산 연구는 이제 시삭에 불과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서술체계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료 확보 또한 기초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어 향후 자료원을 더욱 확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구술자료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빨찌산 활동에 관련된 기억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구술자료 확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한국전쟁 전후의 미군의 역할, 전쟁 전후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연구, 전쟁과 관련된 민중의 총체적 경험 등 연계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공비 4만 사살’이라고 발표했으며(국방부, 『韓國戰亂一年誌』, 1951, B132쪽), 군은 1951년 12월 이래 지리산 지구에서만 사살과 생포를 포함해서 21,051명의 인적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국방부, 1952, 『韓國戰亂二年誌』, B154쪽) 실지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빨찌산 활동에 참가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